시엘병원 새생명탄생센터 외국에 명성

몽골 등 e-mail 불임치료문의·초청 강의 요청 쇄도

최근 시엘병원 새생명탄생센터에서 몽골 출신 다문화가정 여성이 불임으로 고통받던 중 시험관아기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같은 처지의 여성과 몽골 현지에 전해지면서 시엘병원을 찾는 몽골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몽골 현지인들에게 시엘병원의 명성이 퍼지면서 몽골 현지 산부인과 의사들로부터 e-mail 을 통한 불임치료문의와 초청 강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범채 원장〈사진〉은 최근 몽골 울란바도르 국립 모자병원의 초청을 받아 4일 동안 몽골 현지에서 불임증 진단과 치료에 관한 강연 및 현지 불임증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국립 모자병원의 불임전문병원 육성을 위한 불임 신기술 전수를 위해 협의를 지속기로 했다.

시엘병원의 외국인에 대한 진료는 국내 이주여성은 기본이고, 해외 불임여성들에게는 직접 e-mail 원어민 불임상담을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미국 LA에 거주하는 불임증환자 부부가 미국내에서 시험관아기시술 실패 이후 시엘병원을 직접 찾아 시험관아기시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리적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시엘병원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최범채 원장의 국제학회 연구논문 실적과 연구수상 경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시엘병원은 영어권·중국·일본·러시아·몽골 지역의 언어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는 점도 큰 이점으로 통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건강관리협회,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병원 인증 받아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조한익)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건강증진병원(HPH, Health Promoting Hospitals & Health Services)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국내에서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병원 인증을 받은 곳은 몇 군데 있으나 이중 건강증진센터로서 인증받은 것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최초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병원 인증은 지난 198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후 전 세계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의 틀을 제시한 것으로 2010년 7월말 기준으로 전 세계 802개 의료기관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한편 1970년대 기생충 퇴치 사업을 성공시켰던 건강관리협회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함께 최근에는 각종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조선대병원 최신형 MRI 도입

촬영 대기시간 크게 줄어

조선대병원(병원장 김만우)이 뇌 분석을 상세하게 할 수 있는 최신형 자기공명영상기기(MRI·사진)를 추가로 도입했다.

독일 지멘스사 'Magnet Avanto' 1.5T 모델인 이 MRI는 최고의 우수한 이미지와 빠른 촬영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의 머리부터 촬영하는 방식이 아닌 다리부터 촬영이 가능해 폐쇄 공포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매우 효과적이며, 모든 방향에서 전신 촬영을 할 수 있어 환자가 보다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자세 교정없이 작은 병변까지 진단할 수 있으며, 소음을 97%까지 현격히 줄여 환자가 헤드폰이나 귀마개를 할 필요 없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최신 MRI의 추가 도입으로 환자들의 당일 MRI검사가 가능해져 그동안 검사를 위해 상당 시간을 기다렸던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일보·조선대병원 공동기획

암 아는만큼 이긴다

〈9〉 조기 위암 치료

전이 의심땐 복강경절제술 가장 효과적

김성수 조선대병원 암센터 교수가 40대 조기 위암 환자와 치료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조기 발견 생존율 95%…검진이 최선 예방책

3기 이상 환자 수술후 항암화학요법 필요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위암 환자에 대한 통계를 보면 '조기 위암'이 전체 위암 환자 중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확대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조기위암의 발견 빈도가 높아진 것 때문이다.

이에 '조기 위암'이 무엇이며, 어떻게 치료하는 지 알아보자.

우선 조기 위암은 림프절 전이 여부에 관계없이 암세포가 위의 점막층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암으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대표적인 암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5%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조기위암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장기 생존자가 늘어남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양하게 연구·개발됐고, 최근 내시경 기구의 발전과 더불어 복강경 기구나 기술의 발전으로 조기위암의 치료법은 더욱 복잡한 모양을 가지게 되었다.

조기위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수술적인 근치적 절제가 현재까지 가장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주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조기 위암에서 림프절 전이의 빈도는 5~2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림프절 전이를 수술전에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복부전산화단층촬영 또는 내시경 초음파 등을 통하여 약 70~80%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듯이 림프절 전이가 의심이 되는 조기 위암에서 적용되는 치료법이다.

조기 위암에서의 수술적 치료는 크게 '복강경수술'(로봇수술을 포함)과 '개복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강경하위절제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수술 후 일상 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며, 수술 후 통증 또한 적어서 고가의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복강경하위절제술을 택하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치료 성적은 복강경하위절제술과 개복수술을 비교하였을 때 재발율과 생존율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최근에는 복강경하위절제술이 표준 술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로봇수술은 일종의 복강경하위절제술의 변형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복강경하위절제술에 비해 여러 장점이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은 복강경하위절제술보다 우위에 있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내시경하점막절제술**=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에서 적용되는 치료법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림프절 전이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현재 내시경하점막절제술은 점막에 국한된 암으로써 크기가 비교적 적은 2cm 미만의 위암에서 적용이 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여러 기술의 발전으로 조금씩 적용범위가 늘어가고 있다.

수술에 의한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림프절 전이 여부를 예측하기 힘들고 림프절 절제가 불가능하여 내시경하점막절제술을 시행 받고 이후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항암화학요법**=수술로 위절제를 받은 환자들 중에서 림프절 전이가 많이 있는 일부 조기 위암환자(병기가 2기 또는 3기 이상인 환자)에게 적용이 되는 치료법이다.

항암화학요법은 여러 약제가 혼용이 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각각의 약제의 치료 성적은 크게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기 위암의 치료는 환자 상태의 병의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

조기 위암의 치료 성적은 다른 암에 비하여 월등히 좋기 때문에 만 40세 이후의 성인 남녀는 꼭 2년에 한번 이상 위암검진을 받아야 한다.

〈조선대병원 암센터 김성수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문의가 권하는 위암 예방법

식습관이 가장 중요

짜고 탄 음식 피하라

전문의들은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분 담배가 폐암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흡연은 모든 암의 원인으로 400여 가지 발암 물질이 폐를 통해 흡수된 뒤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이다.

또한 식습관이 아주 중요하다. 위암 발병은 유전적인 요인이 적고,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소금에 절이거나 짠 음식, 불에 탄 음식은 위암 발병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소금은 그 자체가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과다 섭취하면 위염을 유발하고 위 점막을 손상시켜 발암물질의 작용을 돕는 보조 발암작용을 한다.

건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 우유, 콩 제품이 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식습관은 고치기가 어려운 만큼 어려서부터 바른 입맛을 들이려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00611-중-18671호 광고

▲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이 이마에 잔주름이 생긴 여성에게 히알루론산 시술을 하고 있다.

부작용 거의없이 피부 재생, 탄력 살리고 주름 개선

비수술적 성형, '히알루론산 시술'

나이가 들수록 피부조직은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간다. 이와 같은 노화현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피부가 처지면서 뺨과 코 옆, 입주변 등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노화현상인 피부 건조증이 더해지면 잔주름이 더욱 악화된다. 물론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탄력도 떨어진다.

피부의 섬유 조직 사이에 들어있는 젤리 상태의 물질인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이며, 특히 피부에 직접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피부를 재생시켜 탄력과 잔주름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히알루론산은 인체 내 성분으로 피부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으며 수개월에 걸쳐 피부 내에서 안전하다. 이 때문에 최근 피부진피층에다 히알루론산을 직접 주사함으로써 얼굴과 목에 생긴 주름을 개선하는 히알루론산 치료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히알루론산은 인체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하며,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갖고 있는 점액질 물질로서 특히 피부와 관절, 연골 등에 많이 분포한다. 태어날 때부터 피부에 히알루론산이 있어서 맑고 투명한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데, 나이가 들면서 히알루론산이 줄어들어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탄력이 사라지면서 노화현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히알루론산 시술의 부작용으로는 주사침 구멍 감염우려와 약물에 의한 과민 반응(알레르기)이 있을 수도 있다.

히알루론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 내 성분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주로 손등, 목 등 전반에 걸쳐 주름 치료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시술은 마취연고를 바르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으며 얼굴 전체 시술시 15분 가량, 목 전체 시술 시 10분 정도 소요된다. 보통 2~4주 간격으로 3회 시술받게 된다.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

김 영 길 성형외과의원

☎ 062) 227-3777 무등극장 앞